

# 때이른 더위에 상반기 전력 거래량 '역대 최고'

### 광주·전남 1~5월 판매량 전년동기대비 5.9% 증가 농사용 8.7%·산업용 7.0%·일반용 5.4% 늘어나 전국 역대 최대전력수요 경신...한전, 대책기간 운영

코로나19로부터의 경기 회복세와 이른 더위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1~5월) 광주·전남 전력 판매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6월의 열대야가 나타날 정도로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앞서 7일 하루 최대 전력수요는 이미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 한국전력 '5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올해 1~5월 누계 전력 판매량은 1835만MWh(메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101만MWh)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 전력 판매량은 363만MWh에서 374만MWh로 2.8% 늘었고, 전남은 1370만MWh에서 1461만MWh로 6.7% 증가했다.

광주·전남 1~5월 전력 판매량은 1648만MWh(2020년)→1733만MWh(2021년)→1835만MWh(올

해)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이 기간 기준 올해 광주·전남 전력 판매량은 전력 통계월보를 발표한 지난 2003년(918만MWh)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광주·전남 전력 판매량은 10년 전인 2012년(1522만MWh)에 비해 20.5% 증가했다. 1~5월 광주·전남 전력 판매량이 1800만MWh를 넘긴 건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과 올해뿐이다.

올 들어 광주·전남 전력 판매량을 계약종별로 보면 가로등(-0.7%)과 심야(-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 모두 증가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전력은 농사용이었다. 농사용 전력 판매량은 지난해 175만MWh에서 189만MWh로, 8.3%나 뛰었다.

공장이 쓰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올해 1~5월

1070만MWh로, 전년 같은 기간(1000만MWh)보다 7.0% 늘었다.

자영업자가 주로 쓰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은 284만MWh에서 300만MWh로, 5.4% 증가했다.

이외 주택용은 1.4%(200만MWh→203만MWh) 늘고, 교육용도 4.0%(26만MWh→27만MWh) 증가했다.

한편 올해 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상반기 전국 전력거래량은 26만9432GWh(기가와트시)로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난 수치며, 상·하반기 통틀어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3위 규모다. 1위 기록은 지난해 하반기(27만7630GWh)에 세워졌으며, 2018년 하반기(27만4506GWh)가 2위다.

전력거래금액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석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대폭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력거래금액은 지난해 동기보다도 60.7% 급증한 37조3492억원으로 상·하반기 통틀어 압도적인 1위다. 반기 기준으로 30조원 선을 넘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한전이 발전사에

서 전력을 살 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전 대규모 적자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올 하반기 전력 거래량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달 초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대 전력수요는 이미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여름철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수요가 9만2990MW까지 올라 기준 최고치인 2018년 7월24일 오후 5시의 9만2478MW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은 앞서 다음 달 둘째 주 최대 전력수요가 9만1700~9만5700MW로 올여름 전력수요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달을 남겨두고 이미 전망치의 하한선을 넘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주(~15일) 전력 수급에 대해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전력은 오는 9월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나주 분사와 15개 지역본부에 전력수급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코스피	2317.76(-22.51)
↓ 코스닥	750.78(-16.26)
↓ 금리(국고채 3년)	3.291(-0.033)
↑ 환율(USD)	1312.10(+8.20)



## 해양에너지 'SWEET 2022' 참가

광주·전남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해양에너지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박람회 'SWEET 2022'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2010년부터 13회에 걸쳐 이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해양에너지는 기존 도시가스 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 태양광 발전사업, 수소 사업을 소개했다.

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SG 경영 활동 등 지속성장을 위한 도시가스 산업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해양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태양광 및 연료전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마을형 연료전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소경제 시대 전환을 위해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 내 수소 혼합 실증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개발사업에 AI·사물인터넷 신기술 적용 필요”

### 최갑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장 잠재력 갖춘 호남, 첨단서비스·문화콘텐츠 융합 도시로

최갑렬(삼일건설(주) 회장·사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호남지회장은 12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개발업계도 이런 시대변화에 맞춰 기존 사업방식을 벗어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융합하는 등 혁신을 통한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25일 KODA 호남지회 3대 지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기존의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공간개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흐름에 따라 다양한 첨단서비스와 문화콘텐츠를 융합해 살아 움직이는 도시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도시재생을 넘어 새로 도시를 만든다는 뜻의 ‘도시 창생’을 이뤄내야 할 때”라며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개발에서 지회의 역할을 찾아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 등 학계와 연계해 정책연구세미나와 강연회, 도시재생 관련 심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업계의 자질과 능력 배양에 힘쓸 예정이다. 또 회원사들이 선진 해외개발 사례 탐방 및 견학을 위한 해외시찰도 추진한다.

최 지회장은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배워가면서 아름다운 도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과 민간공공개발 협력, 도시재생 산학연계,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밖에 부동산개발업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내 사업 관련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을 통해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호남지회 사무실 이전과 사무국 재정비를 통해 신규회원 모집과 회원 서비스 강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지회 발전의 토대 마련에도 나선다.

최갑렬 지회장은 “디벨로퍼는 국가발전을 위한 선개척자의자 되고 도시발전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품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호남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틀을 다져놓는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고배 풀린 환율

1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16원대를 넘어 서며 13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증가보다 8.2원 오른 달러당 1312.1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증가보다 7.1원 오른 1311.0원에 개장 한 환율은 오전 9시 52분께 1311원대로 올라 서며 지난 6일 장중 기록한 연고점(1311.0원)을 4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

환율은 이후 지속해서 상단을 높이며 장중 1316.4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30일 장중에 기록한 고점인 1325.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화 강세는 유로화 급락의 영향을 받았다.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에너지 위기가 유럽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로화 하락을 이끌었다.

이날 유로화는 달러화 가치와 1대 1로 교환되는 패리티(Parity)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급락했다.

중국 마카오의 코로나19 관련 봉쇄 소식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다. 마카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영업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한때 108.5까지 오르며 강세를 반영했다.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빅 스텝(기준금리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달러 매도 물량이 적은 점도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환율이 지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며 13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1인 가구 부담없이 드세요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직점들이 지하 1층 청과매장에서 껍질을 깎아 먹는 '애물 수박'과 '블랙망고 수박' 등 1인 가구에 적합한 작은 크기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 광주은행,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광주은행이 광주시 동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재원으로 지난 2월 5000만원을 출연한 데 이어 12일 5000만원을 추가 출연했다.

광주은행은 송중욱 은행장과 임택 동구청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이날 동구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이 출연한 재원으로 광주시 동구 소상공인들은 총 15억원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받는다.

업체당 최장 5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감면 해줄 방침이다. 대출 취급 후 2년 동안 광주시 동구가 2.5%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특히 이번 추가 협약을 통해 기존에 1년이었던 저차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초기

원금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은행은 광주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지난 2019년부터 총 1억8000만원을 특별출연해왔다. 이로써 255개 업체가 총 54억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받았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자체 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3만897건, 1조3943억원에 이른다.

송 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식자재 및 원자재 등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화된 경기 침체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는 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채용서 퇴직까지 인사노무 관리 실무교육

광주상의 15일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5일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 관리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법 개정사항과 관련된 실무 중점 내용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개정 노동관계법령(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연차유급휴가(기본 법리, 고용노동부 변경지침 등) ▲근로시간(주휴일,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관리와 채용 및 퇴직(통상임금, 채용 절차법, 퇴직관리 등)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의 이론 및 실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약 7시간 동안 진

행된다.

서울상공회의소 노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법인 천지의 김민희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실무 중점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절기”라면서 “앞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강의와 설명회,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 전화(062-350-5883)로 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NH 재해보험 신상품 판매

### 농협생명 전남총국 신기록

출시 첫날 1149건 실적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은 '뉴 삼천만인NH 재해보험'을 출시한 지난 11일 하루 1149건을 판매하며 신상품 판매 실적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생명보험 신상품에 대한 농·축협 판매 인기특이로 농협생명 측은 설명했다.

'뉴삼천만인NH재해보험'은 매년 자동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치료와 위로금 보장을 위해 새롭게 출시됐다.

운전자든 비운전자든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면 단돈 50만원 보험금을 지급한다. 야외 활동 때나 영농철에 걸리기 쉬운 급성 감염 질환 쯤쯤가무시병 등 전염병도 보장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